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하였으며”(렘 6:16).

# 옛신앙

Old-time Faith

www.oldfaith.net

‘옛신앙’이란 옛부터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증거했던 신앙, 오직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에만 근거한 신앙, 오늘날 배교와 타협의 풍조에 물들지 않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04072 서울 마포구 독막로 26 (합정동) 합정동교회 김효성 목사, ☎ 02-334-8291, E-mail: oldfaith@hjdk.net

## 주일오전설교

## 문안과 감사

[골 1:1-2]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으로부터 은혜와 평강** 평안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 그는 그의 직분에 대한 소명감이 분명했다. 교회의 직분자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뜻 가운데 그 직분에 그를 부르셨다는 소명감을 가져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직분에 대한 소명감과 사명감이 분명해야 겸손하게 그리고 낙심치 않고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다.

‘성도’는 매우 존귀한 이름이다. 죄로 인해 더러워졌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았고 단번에 거룩해졌다. 그것이 구원이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들의 존귀한 이름이다. 또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이란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는 자들을 가리킨다. 그들은 하나님의 가족이며 천국의 백성이다. 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들이다. 실상, 신앙 안에서 맺어진 관계는 혈육 관계보다 더 의미가 있다. 믿음 안에서의 형제 자매는 육신의 형제 자매보다 더 친밀하다. 육신의 형제는 100년 간의 관계이지만, 믿음의 형제는 영원한 관계이기 때문이다.

또 ‘**은혜와 평안**’은 사람들이 지상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이다. 은혜는 죄씻음과 의롭다 하심의 구원의 복이다. 평안은 그 구원에 뒤따르며 동반되는 복이며, 그것은 마음의 평안뿐 아니라, 몸의 건강, 물질적 안정, 환경적 평안도 포함한다. 은혜와 평안은 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온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를 위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안을 기원해야 하며, 또 그 복을 누려야 한다.

[3-5절]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항상 기도하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음으로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 둔

소망을 인함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 항상 기도했다. 다른 성도들을 위한 기도는 귀한 사랑의 행위이다. 우리도 자신을 위해, 다른 성도들을 위해, 특히 목사라 직분자들을 위해 항상 기도해야 한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그 이유는 그들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 때문이었다. 그것들은 세상의 것들과 비교할 수 없이 가치 있는 것들이다. 성도는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 자신의 구원과 미래의 영광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

첫째로,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이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구원의 생명이다. 믿는 자는 구원을 얻지만, 믿지 않는 자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그러므로 믿음은 큰 보화이다. 그런데 믿음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르신 자들만 가질 수 있다. 골로새 교인들에게는 구원에 이르는 이 귀한 믿음이 있었다.

둘째로,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이 모든 성도들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서로 사랑하는 것은 주께서 주신 새 계명을 실천하는 것이다. 무엇이 참 교회의 모습인가? 물론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전하는 교회가 참된 교회이다. 하나님의 뜻을 성경에 계시된 대로 바르게 전하고 가르치고, 바른 교리 사상을 가지고 바른 신앙을 고백하고, 배교의 시대에 배교에 따라가거나 배교와 타협지 않고 잘 못된 연합운동에 참여하지 않고 그것으로부터 분리된 교회가 참 교회이다. 그러나 참 교회는 또한 바른 말씀을 실천하는 것, 특히 서로 사랑하는 교회이다. 모든 교인들이 겸손히 상대를 존중하고 사랑으로 일치 단합하는 교회가 참 교회이다.

셋째로,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이 가진 소망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성도들의 소망은 그들을 위해 하늘에 쌓아둔 것들, 즉 천국과 부활과 영생 등 영광스러운 내용이다(롬 8:18).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

이라는 원어는 ‘복음 진리의 말씀에서 들은 것’이라는 뜻으로 소망의 내용이 복음 진리 안에 제시되어 있음을 말한다. 그렇다. 영광스러운 천국과 부활과 영생은 바로 구원이 의미하는 바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은 바로 이 영광스러운 내용을 포함한다.

‘복음 진리의 말씀’이라는 표현은 복음이 진리의 말씀임을 보인다. 우리는 세상의 다른 어느 곳에서도 진리를 찾아볼 수 없다. 다른 곳에는 진리가 없다. 진리는 하나님 안에만 있고 하나님의 주신 복음 안에만 있다. 그 내용이 구원의 소식이고, 영광의 천국과 부활과 영생의 약속이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한 자들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를 발견한 자들이다.

**[6절]**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도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나도다.

‘하나님의 은혜’는 복음의 내용, 즉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진리를 가리킨다.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구원받은 것을 가리킨다. 이미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구원의 열매들이다. ‘깨닫다’는 원어(에피기노스코)는 ‘참된 지식에 도달하다, 바르게 인식하다’는 뜻이다. 구원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깨닫고 믿을 때에 온다. 참 지식은 믿음에 필수적 요소이다. 참된 깨달음과 지식이 없이는 참 믿음이 건립될 수 없다. 믿음은 참되고 견고한 지식 위에 세워지지, 바른 지식 없는 막연한 감정 위에 세워지지 않는다.

**[7-8절]**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중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에바브라에게서도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고한 자니라.

에바브라는 바울 일행과 ‘함께 중된’ 자, 곧 하나님의 일꾼이었다. 골로새 교인들은 그에게서도 복음 진리를 배웠다.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자들이 있었고, 복음을 듣고 배우는 자들이 있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다. 구원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믿는 데서 온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과 새 생명의 일을 위해 필요하고 유익한 과정이며 하나님의 정하신 방법이다. 에바브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고 충성된 일꾼이었다. 골로새 교인들은 복음의 말씀을 믿었고 성령 안에서 서로 사랑하였다. 사랑은 참된 복음 신앙의 증거이며 말씀 순종의 표이었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안을 사모하며 받아 누려야 한다. 그것은 큰복이다. 우리는 이미 이 복을 받았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과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평안과 몸의 건강, 물질적 필요의 공급, 환경적 평안을 누리다. 우리는 늘 이 복을 사모하며 누려야 한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참된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과, 하늘에 간직된 소망 곧 천국과 부활과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또 그것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참 믿음은 구원의 생명이며 참 사랑은 참 믿음의 열매이며 증표이고 참 소망은 우리의 구원의 목표이며 힘과 기쁨이다.

### 주일오후설교 첫째 인부터 넷째 인까지

[계 6:1-2] 내가 보매 어린양이 일곱 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뢰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와서 보라 하더라. [내가 이에 보니][그런데 보라] 흰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일곱 인으로 봉해진 책을 취하신 어린양께서 인을 하나씩 떼실 때마다 장래 일이 예언된다. 첫째 인을 떼실 때, 요한은 흰말과 그 탄 자를 보았다. 요한계시록에서 흰색은 좋은 뜻으로 사용된다. 흰색은 성결과 의를 나타낸다. 인자 같은 이의 머리털은 양털같이, 눈같이 희었다(1:14). 신실한 성도들은 흰 돌을 받았고(2:17) 흰옷을 입었다(3:4). 또 재림의 주님은 흰말을 타고 오실 것이며(19:11) 그를 따르는 하늘의 군대들도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흰말을 타고 그를 따를 것이다(19:14). 또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보좌도 흰 보좌일 것이다(20:11). 그러므로 본질의 흰말과 그 탄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그레다니스, 박윤선) 혹은 그의 거룩한 심판 사역을 상징하는 듯하다. 그가 면류관을 받고 이기고 또 이기려 한 것은 그의 사역이 승리적임을 말한다.

**[3-4절]**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붉은 말과 그 탄 자는 전쟁을 상징한다고 보인다. 그가 ‘큰 칼을 받은 것은 전쟁으로 인한 큰 살육을 뜻할 것이다. 그것은 오늘날 볼 수 있는 대량 살상 무기를

예언한 것일지도 모른다. 말세의 한 징조는 국가 간의 갈등과 전쟁들이다. 주의 재림 전에 큰 전쟁들이 있을 것이다. 마태복음 24:7,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요한계시록에는 본절 외에도 유브라테 강 부근에서 2억의 군사가 동원될 전쟁과(계 9:13-16), 유브라테 강이 말라 동방 왕들이 들어옴으로 세계적 연합군이 형성되어 아마겟돈(므깃도 언덕)에서 마지막 세계대전이 일어날 것이 예언되어 있다(계 16:12-16).

역사상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크고 작은 전쟁이 있었으나, 그 모든 전쟁들 중에서도 20세기에 치른 두 차례의 세계대전은 처참한 전쟁이었다. 제1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죽은 군인들만 거의 1,000만명에 이르렀고, 제2차 세계대전으로 죽은 군인들만 약 1,700만명이었다고 한다. 민간인 사망자 수도 헤아릴 수 없이 많았을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세계는 서방세계와 공산진영으로 서로 대립되었고 아직까지 그 갈등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공산주의자들이 세계 공산화의 꿈을 버리기 전까지는 그러할 것이다. 또한, 중동에서는 이스라엘 나라와 아랍 국가들 간의 종교적 갈등이 있다. 만일 제3차 세계대전이 발생한다면, 그것은, 핵무기와 화학-생물학무기들을 동원한 인류가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매우 처참한 전쟁이 될 것이다.

**[5-6절]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래와서 보래 하기로 (내가 보니) [보리]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서 나는 (뜻하는)(전통사본은 생략함)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 되로다. 또 감람유와 포도주를 해치 말라 하더라.**

검은 말과 그 탄 자는 기근을 상징함이 분명하다. 손에 저울을 가진 것은 식량의 배급을 상징하며 그것은 식량이 부족할 것을 뜻한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고, 한 되의 보통 사람의 1일분 식량이라고 한다. 하루 품삯으로 한 되의 밀을 살 수 있다는 것은 식량값이 매우 비싼 것을 의미하고 그것은 식량의 큰 부족을 나타낸다. 보리는 밀보다 품질이 낮은 식량이다. 그러나 감람유와 포도주를 해치 말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서민들의 기본적 식용품, 의약품, 음료수가 허용됨을 보이는 것 같다.

주의 재림 전에는 기근이 있을 것이다. 마태복음 24:7, “처처에 기근들과.” 기근은 옛날부터 있어왔지만 근래에 세계적으로 더욱 심해진 것 같다. 월드북 백과 사전에 의하면, 1870년대에 남부 인도에서 약 5백만명

이 기근으로 죽었고, 중국에서는 9백만명 이상이 죽었다. 1929년과 30년에는 중국의 황허강의 홍수로 인한 기근으로 약 2백만명이 죽었다. 1943년 동부 인도 벵갈에 대기근이 있었다. 제2차 대전 후 150만명 이상이 기근으로 죽었다. 1960년대 이후 아프리카의 사하라 사막 남부 사헬 지역과 남부 아프리카, 특히 이디오피아 등에 심각하여 수백만명이 죽었다. 유엔 식량농업 기구(FAO)는 2019년 세계에 약 8억 2천만명이 기아 상태에 있다고 보고하였다.

**[7-8절]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래와서 보래 하기로 (내가 보매)(전통사본에는 생략됨) 청황색 창백한 색, 회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陰府)[무덤]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사본 일의 권세를 얻어 겹과 흉년과 사망 [혹은 '온역'(BDAG, NASB, NIV)]과 땅의 짐승짐승들이므로써 죽이더라.**

청황색 말과 그 탄 자는 사망을 상징한다. 그의 뒤를 따르는 음부는 무덤을 가리킨다. 지구에 사는 사람들의 4분의 1은 전쟁과 기근과 사망 혹은 무서운 전염병과 땅의 짐승들로 인해 죽을 것이다. 주의 재림 전에 많은 전염병들이 있을 것이다. 마태복음 24:7, “기근들과 온역들(전통본문)과.” 역사상 많은 질병들이 있었지만, 의학이 발달된 오늘날도 병원들은 각종 환자들이로 붐빈다. 고혈압과 당뇨와 암은 오늘날 무서운 질병들이다. 특히 동성애에 관련이 있어 보이는 에이즈(후천성 면역결핍증)의 확산은 매우 위협적이다. 에이즈는 1981년 처음 보고된 이후 2014년까지 30여년간 그로 인한 전 세계의 사망자 총수는 약 4,000만명이었고, 매년 사망자수는 약 200만명에서, 2013년 약 150만명, 2018년 약 77만명이었다. 2013년, 전 세계에 에이즈(HIV) 감염자수는 약 3,300만명으로 추정된다. 이것은 시대적 재앙이다. 이와 같이, 전쟁과 기근과 질병 등의 사실들은 오늘 시대가 세상의 마지막 시대라는 징조라고 본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주의 재림 직전에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 등으로 많은 사람이 죽을 것이다. 이것은 마태복음 24장의 주의 말씀과 일치한다. 물론 이런 징조들은 교회 시대 전체에 걸쳐 성도들에게 교훈을 주려고 어느 정도 나타날 수 있으나, 교회 시대 말기, 즉 주의 재림 직전에 절정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것은 대환난의 시대이다. 이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사도들이 가르치신 바이었다.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시대가 혹시 그 시대가 아닌지 깊이 생각해보아야 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 대환난에 대비하는 군

건한 믿음과 충성된 마음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날 교회들과 우리에게 순교를 요구하신다 할지라도 기꺼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참된 믿음과 충성된 마음을 준비해야 한다. 마태복음 16:24,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요한계시록 2:10,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다.”

### 수요일 설교

## 순금 등대의 환상

[속 4:1-6] . . .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령 순금 등대와 일곱 등잔들은 의와 진리를 밝히 증거하는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 즉 그가 피흘려 사신 성도들을 예표한다고 본다. 두 감람나무와 일곱 관은 성령께서 은혜와 힘을 중단 없이, 풍부하게 공급하심을 상징한다고 본다.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령으로 되느니라”고 말씀하신 것은 성전 건립이 사람의 힘이나 능력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 곧 성령으로 됨을 보인다. 이것은 구약시대의 성전뿐 아니라, 신약교회도 그러하다. 개인의 구원과 성화와 그러하고, 영혼들의 구원과 교회의 건립과 양육과 성장, 그리고 완성도 그러하다.

[7-10절] 큰 산아, 네가 무엇이나? 네가 . . .

‘큰 산’은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자들을 가리킨 것 같다. 방해자들은 큰 산과 같은 장애물이다. 그러나 그들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스룹바벨의 손을 통해 성전의 기초와 머릿돌을 놓게 하셨다. 사람들은 “은총, 은총이 그것에게(라흐) 있을지어다”라고 외칠 것이다. 그것은 성전 건축의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고 완성됨을 기원하는 뜻이 있다고 본다. 오늘날도 개인의 구원이나 교회의 건립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고 진행되고 완성된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다. 고린도전서 3:7, “그러즉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10절의 ‘작은 일들’은 전의 솔로몬 성전에 비교해 보잘 것없어 보이는 스룹바벨 때의 성전 재건 공사를 가리킨다. 그 일곱은 일곱 등잔을 가리키는 것 같다. 일곱 등잔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 곧 일곱 영을 가리킬 것이다. 요한계시록 5:6은, “일곱 눈이 있으

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고 말한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영이시며 전지(全知)하신 영이시다. 성령께서는 온 땅에 두루 행하시며 모든 일을 보시고 행하시며 이루신다.

[11-14절] 내가 그에게 물어 가로되 등대 좌우의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이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가로되 금 기름을 흘려내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이까? 그가 내게 대답하여 가로되 네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대답하되 . . .

순금 등대 좌우의 두 감람나무나 두 가지는 같은 것을 상징한다고 본다. 두 감람나무의 두 가지에서 금 기름이 두 금관을 통하여 흘러 등대의 일곱 등잔에 공급되고 그 등잔은 빛을 내는 것이다. 두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기름을 금 기름이라 부른 것은 그것의 고귀한 가치를 표현한 것일 것이다. 그 기름은 분명히 성령을 상징했다. 천사는 그 두 감람나무를 온 세상의 주, 곧 하나님 앞에 모셔 썼는 기름 발리운 자 둘이라고 설명했다. 구약시대에 기름 발리운 사람은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이었다. 여기에서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총독 스룹바벨을 가리켰다고 본다. 그러나 단지 그들 자신을 가리켰다기보다 그들의 직분과 사역이 예표하는 자를 가리켰다고 본다. 그들은 메시아를 예표한 자들이었다.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은 예표의 사람들이었다(속 3:8). 메시아께서는 제사장과 왕으로 오실 것이다. 그는 일곱 눈을 가진 둘로 오셔서 친히 고난을 받으시고 죄악을 하루에 제하실 것이다(속 3:9). 회복된 이스라엘 곧 신약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의 충만한 공급하심을 받아 세상에 빛을 발할 것이다.

본장의 교훈은 무엇인가? 첫째로, 구약 성전이 예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진리와 의를 비추는 순금 등대와 같다. 성전 건립의 일, 곧 성도 개인의 구원과 온전함, 그리고 교회의 건립과 성장과 완성은 참으로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작게 보이는 일을 멸시하지 말고 개인의 성화와 교회 건립에 힘써야 한다.

둘째로, 성전 건립의 일은 사람의 힘으로나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진다. 사도 바울은 씨를 심는 이나 물을 주는 이가 아무것도 아니고 기르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뿐이시라고 말했다(고전 3:7). 성전 건축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 주께서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하셨다(마 16:18). 우리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충만한 은혜만 의지하며 개인의 성화를 조금씩이라도 이루어가고 참된 교회의 건립과 성장과 완성을 위해 힘써야 한다.